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1월 23일(금)  
..(윤력 12월 5일)..  
Пятница  
23 января 2026 г.  
№ 3 (1217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대학생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학생의 날 대규모 축제 개최

오는 1월 25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테리토리아 마네지' 축제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육상경기장 마네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장 1층에서는 현지 브랜드와 공예품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리며, 학생 카페도 운영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여러 테마별 부스에서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보드게임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구 3대3, 배구, 탁구 경기뿐 아니라 레이저 태그와 군사 응용 게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녁 시간에는 콘서트가 열리며, 학업·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수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과 협찬사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마네지 내 무료 스케이트장 이용과 스케이트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 사할린주,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10톤 규모 구호 물품 지원

사할린주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파병된 군인들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월 16일, 사할린에서 총 중량 10톤이 넘는 2026년 새해 첫 구호 물품이 발송됐다.

이번 첫 구호 물품의 준비와 선적 작업에는 사할린 지역의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사할린 청년 자원 센터' 직원들과 사할린 철도운송기술대학 학생들, '블라디미르 스타니차 카자크회' 활동가들, '러시아의 버팀목' 사할린 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함께' 본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해 첫 발송 물품에는 사할린 주민 가족들이 마련한 개인 소포를 비롯해 사회단체, 학교, 베테랑 클럽, 사할린 지역 '실버'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단체 화물도 포함됐다. 구호 물품에는 방한용 니트 의류와 위생용품, 야전 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겨울용 타이어가 담겼으며, 사할린 전통 먹거리 선물과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전달됐다.

## 사할린주, 2025년 공동주택 146개 동 자본수리 완료

사할린주 자본수리 기금은 지난 1년간 공동주택 146개 동에서 총 218건의 지붕, 외벽, 지하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프로젝트 '삶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사할린주 자본수리 기금은 이를 2025년 업무 성과로 결산했다.

사할린주 전역에서는 총 90개의 지붕과 상·하수도, 난방, 전기, 가스 공급 및 배수 시설 등 75개의 공학 설비망, 그리고 42개의 외벽에 대한 수리가 이뤄졌다.

세웨로쿠릴스크에서는 지진 피해 이후 43개 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돼 건물 외관과 굴뚝, 지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이고리 본다레브 사할린주 자본수리 기금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대규모 정비 작업이 실시돼 아파트 34개 동에서 지붕 19개, 외벽 9개, 지하실 4곳 등 총 71개의 구조물이 개보수됐다. 이와 함께 홈스크 구역에서는 15개 동, 코르사코브 구역에서는 6개 동의 공동주택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2025년에 계획된 모든 자본수리 작업이 완료됐다.

## '사할린 장수' 프로젝트로 고령층 체육 참여 확대

사할린 지역에서 '사할린 장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200명 이상의 주민이 스포츠 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 장수'는 주 내 고령층 주민들에게 알차고 활기차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은 연간 최대 240회까지 스포츠 시설과 헬스장, 수영장, 물론 콘서트, 전시회, 견학 투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전액 주 예산으로 지원된다. 프로젝트의 인기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4년에는 1만 4,900명이 스포츠 시설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년 뒤 참가자는 3,300명 증가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총재는 "오늘날 극동 지역의 모든 정부는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요구에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할린 장수' 프로젝트는 55세 이상 시민들이 풍요롭고 흥미로운 삶을 영위하며, 문화 행사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중요한 신호가 된다"며 "청년들은 앞선 세대의 사례를 통해 사할린과 쿠릴 열도가 모든 연령대가 살기 좋은 지역임을 인식하고, 고향에서 학업과 일을 이어가려는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직업적 성공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장수'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고령층을 위한 시설은 주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돼 있다. 특히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수중 스포츠 단지인 '아쿠아 시티'와 '월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이 두 시설을 총 5만 1,000회 이상 이용했다. 이 밖에도 스키 복합 단지 '고르니 워즈두흐' 역시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 스포츠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방자치단체 체육 시설로는 '시네고르스키에 미네랄리예 워드' 요양소, 홈스크 체육학교, 포로나이스크의 '포로나이스크 아레나' 체육·건강관리 복합시설이 꼽혔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전호의 계속)

3월 29일 -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창설 3주년을 맞아 시티몰 쇼팽센터에서 문화계몽행사 '입춘: 봄이 왔다!' 개최. (본지 4월 4일호)

4월 6일 - 러시아 국영 TV '제1채널' 프로그램 '힐 위의 세프' 사할린 특집 방송에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의 태권도 체험과 김치 만들기 소개. (본지 4월 11일호)

4월 10일 - '하늘' 한민족 타악기팀(단장 송전석), '대학생의 봄 축제'에서 여러 부문 수상. (본지 4월 18일호)

4월 19일 - 광주 고려인마을은 '사할린 동포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주제로 인문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부터 귀환 운동, 제도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궤적을 조명했다. (본지 5월 9일호)

4월 21일~4월 22일 -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에서 제11회 전러시아 한국어교사연합 주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는 "다문화 소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러시아 전역의 한국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사할린국립대 대표단도 참가했다. (본지 5월 2일호)

4월 23일~4월 26일 - 모스크바 시립교육대학교에서 '교육 공간 속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제2회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할린 대표단이 참가했다.

# 2025년을 돌아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행사·사건

사할린 대표단은 특히 한국어와 한국학, 한민족 문화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본지 5월 2일호)

4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할린 출신 대표들로 구성된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은 인천에서 재외동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사할린한인의 권리 보장과 영주귀국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현행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귀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세상을 떠난 부모를 둔 2세대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새고려신문에는 사할린한인연합회가 재외동포청에 전달한 서한도 함께 게재됐다. (본지 5월 2일호)

4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사할린주한인협회의 활동 보고와 함께, 단체가 러시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본지 5월 2일호)

4월 28일 -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학술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대행이자 역사학 준박사인 진 율리아가 '가라후토 학살: 1945년 8월 남부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을 주제로

발표했다. (본지 5월 9일호)

4월 3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는 '이웃 돌봄' 비영리단체 연합과 팀첸코 재단이 후원하는 '노년' 알리앙스와 공동으로 지역 '호핑(프리즈나니예)' 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장기간 노인정을 운영해 온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지 5월 9일호)

5월 3일 -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75세+ 그룹" 어르신들을 위해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본지 5월 9일호)

5월 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과장 신 율리아)가 준비한 독창적인 발표 공연 <상상의 놀이>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지 5월 9일호)

5월 5일 - 4월 말,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제안으로 사할린주 사흐초르스크 마을의 신테즈 학교에 소련 첩보장교이자 소련 영웅 수훈자인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본명 김 용철, 1932~1988)의 이름이 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5월 5일에는 사흐초르스크에서 명명과 관련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 (본지 5월 2일호, 5월 9일호)

5월 9일 - 러시아에서 위대한 조국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새고려신문은 2011년 출간된 책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의 주요 인물들을 4~5월 동안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소개했다. 해당 저서는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왈렌틴 등 연구자들이 방대한 사료를 분석해 펴낸 연구 성과로, 전쟁 시기 소련 고려인들의 활약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새고려신문은 전쟁과 승리를 주제로 한 사할린 동포 작사가 장태호의 노래 작품 5편도 소개했다.

5월 10일 -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연합회(회장 고영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각각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본지 5월 16일호)

5월 21일 - 서울시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대행인 진 율리아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강연은 "소련 시대의 사할린 한인들: 미즈호에서 나호드카까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2025년이 해방 80주년이자 한·소 수교 35주년, 한·일 협정 6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지 5월 23일호)

5월 21일 -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 주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모 사망

으로 인해 귀국이 어려운 2세대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할린 동포 특별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위원장 위성락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본지 5월 30일호)

5월 23일 - 광주과학기술원(GIST)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와 제주대 4·3 융합전공과정은 냉전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장기 냉전의 지식 기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대행인 진 율리아 학자는 '원치 않는 귀환: 사할린 한인 송환에 대한 일본·한국·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본지 5월 30일호)

5월 28일 - 사할린 한인교인인 이 깊은 제주도에서 온 제주두루나무 예술단체 단원 6명이 사할린을 방문해, 이들에 걸쳐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서 탈춤과 민요, 풍물, 태평소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본지 5월 30일호)

5월 30일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6월 6일호)

5월 3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러시아 민족들: 사할린 한인'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영사 출장소(소장 박상태)의 협력으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과장 신 율리아)가 주최·주관했다. 공연에는 제주두루나무 단원도 참가. (본지 6월 6일호) (3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 코르사코브서 '러시아 눈의 날' 대규모 행사 열려

1월 17일 토요일, 코르사코브 공원에서 전국 눈의 날 행사가 열려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경기와 계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코르사코브 행정부 공보실이 전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물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팀워크를 선보였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겨울이 야외에서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 В Корсакове с размахом отмет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В субботу, 17 января, в парке Корсакова пров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где собрались 11 команд округа и по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ах, эстафетах и забавах.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ля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е только спортивный азарт, но и командную поддержку со смехом и радостью.

«Этот день доказал, что зима — отличное время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отдыха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 отметили в мэрии города.

###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가의 날' 기념 행사 첫 개최

1월 17일 토요일,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기념일인 '예술가(아티스트)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역시 이에 동참해, 사할린 지역의 연극인들이 한 카페에 모여 '배우들의 출발' 행사를 열었다. 이번 소식은 논나 라브리크 사할린주 문화기록물관리부 장관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행사는 러시아 연극인 연맹 사할린 지부가 주최했으며, 체

호브 센터와 사할린 인형극장 소속 배우들이 경연과 팀 응원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슈킨 연극 전문학교 사할린 지부 교사이자 러시아 연극인 연맹 로스토브 지부 회원인 로만 골체브를 비롯해, 옴스크 드라마 극장 '갈료르카'의 배우 와실리아노히 등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각 팀은 노래와 춤 배틀, 배우들의 즉흥 연기, 상식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과 유머 감각을 선보였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경쟁을 넘어 우정이 승리했다는 데 참가자 모두가 뜻을 모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예술가의 날'은 러시아의 연극 개혁가이자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진 연기 시스템의 창시자이며, 소련 최초의 인민 예술가로 평가받는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의 탄생일을 기념해 2025년 9월 제정된 기념일이다.

### День артиста впервые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убботу, 17 января, в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артис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и собрал остров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 в кафе, где участники провели «Актерские старты».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РФ.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 поддержке команд участвовали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Среди гостей были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 Щукина, член Рост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ТД Роман Гольцев. Участником также стал артист Ом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Галерка» Василий Анохин.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команды показали себя в песен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баттлах, актерских импровизация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ах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чувство юмора. В конце вечера участники решили, что в итоге победила дружба.

Напомним, что День артиста учредили в сентябре 2025 года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Константина Станиславского — первого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СССР, реформатор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и создателя знаменитой

актерской системы.

### 사할린 주민 위한 무료 크로스컨트리 스키 훈련 참가자 모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은 웬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산타' 스키 기지에서 열리며, 관련 초청 공고는 '나의 스포츠 유즈니'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게시됐다.

참가자들은 주 3회, 오후 6시에 '올림픽 링' 조형물 인근에 모여 훈련에 참여한다. 또한 '산타' 스키 기지에서는 장비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전화번호 8 (914) 763-19-01로 문의하면 된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лыжам

По вторникам, четвергам и пятницам для желающи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рганизуют тренировки по лыжам. Их проводят на лыжной базе «Санта»,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улице Венской. Приглаш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Мой спортивный Южный».

Любителей лыж собирают у «Олимпийских колец»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в 18:00. При этом на базе «Санта» работает прокат инвентар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можно арендовать на месте.

Все возникшие вопросы можно зад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8 (914) 763-19-01.

### 러시아 학교, 2027년 9월부터 태도(품행) 평가 제도 도입

러시아에서는 2027년 9월 1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1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태도(품행) 점수가 도입된다. 학생들은 규율 준수 여부와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에 대한 적극성, 개인적 자질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교육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8면에 계속)

**(2면의 계속)**

**6월 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 출장소 주최로 '한국, 오늘'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분야의 교사와 학생들이 초청됐다. (본지 6월 6일호)

**6월 3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본지 6월 6일호)

**6월 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연례 미식 축제 '디코로스(식용 야생식물)'의 마지막 행사로 '머위 요리 교실'이 개최됐다. (본지 6월 13일호)

**6월 18일** - 대한민국 국회회관에서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촌동포연대(KIN)의 주관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강·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할린 한인협회,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본지 6월 20일호)

**6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에서 '한민족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와 동양김나지아(교장 이와노와 아나스타시아) 간에 체결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본지 7월 4일호)

**6월 28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대표단의 방한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6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포용 정책 공개 토론회' 참석 결과와 함께 향후 과제가 발표됐다. (본지 7월 4일호)

**7월 7일** -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이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 행사에는 안산등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참석. (본지 7월 11일호)

**7월 8일** - 러시아의 가족·사랑·충실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달네에 마을에서는 명절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준비한 한복 패션쇼가 진행됐다. (본지 7월 11일호)

**7월 18일** - 사할린한인들이 사할린과 한국간 직항 재개문제 내세움. 이에 관한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서한 러시아어면에 게재. (본지 7월 18일)

**7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 주최로 열린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기획의 일환으로, 첫 상연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의 감독 도카 안톤과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본지 7월 25일호)

**7월 24일** - 사할린동포 지원에

## 2025년을 돌아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행사·사건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 명단이 대한적십자사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본지 8월 1일호)

**7월 27일~8월 2일** -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 한인청년회가 주최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역사는 나의 역사'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다. (본지 8월 1일호)

**8월 1일** -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에서 온 편지: 조상들의 잊혀진 목소리' 프로젝트의 시작을 밝혔다. 이번 기획은 1977년 대한민국에서 장민구 기자가 출간한 사할린에서 온 편지의 일부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본지에 연재하는 내용으로, 이후 게재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본지 8월 1일호)

**8월 11일** -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박상태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으로 국장현(1968년생)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가 부임했다. (본지 8월 8일호)

**8월 12일** -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이국땅에 남겨진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토박이>(감독 도카 안톤,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처음 상영됐다. 이날 상영회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본지 8월 15일호)

**8월 16일** -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 내 '코스모스' 운동장에서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지 8월 8일자, 8월 22일호)

**8월 1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와 함께 달네에 마을 문화회관 행사장에서 광복절 축제를 개최했다. (본지 8월 8일자, 8월 22일호)

**8월 20일** - 희망 레일 역사탐방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한국 국민 27명으로 구성된 이번 탐방단은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4일간 사할린에 머물렀다. (본지 8월 22일호)

**8월 23일** - 사할린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 쇼핀센터 앞마당에서 제4회 '라면' 축제를 개최했다. (본지 8월 8일호, 8월 29일호)

**8월 25일** - 다큐멘터리 <아리아리 춤길> 촬영을 위해 김도희·김지운 감독과 김태희 조연출, 그리고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재일조선인 김묘수 무용가가 사할린에 도착했다. (본지 8월 29일호)

**8월 25일~8월 2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 아동음악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할린주 아동 관악오

케스트라 <브라보>(지휘자 박 다니일)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합동 한민족 타악기 앙상블(지도 신 율리아)이 <아동을 위한 스파스카야탑> 아동 관악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사할린주를 대표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본지 8월 29일호)

**9월 9일** -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창의적 활동으로 주목받는 김 예브게니(30)와의 간담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9월 12일호)

**9월 10일** - 사할린과 인연이 깊은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이번 사할린 방문 일정 중 지역 무술인들을 위한 특별 마스터클래스와 심사 자격증 취득 행사를 진행했다. (본지 9월 12일호)

**9월 2일~9월 8일** - 훗카이도 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의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와 동지양 연구원,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의 이준영 연구조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등 사할린 전역을 방문해 지역의 문화·역사 유산을 조사했다.

**9월 5일~9월 12일** -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 선수단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24회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씨름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본지 9월 12일호)

**9월 13~18일** - 중국 연길에서 열린 민족씨름초청경기에 사할린 대표팀(단장 춘 알렉세이)이 성공적으로 참가했다. (본지 9월 26일호)

**9월 17~22일** - 소외된 재외동포의 삶과 역사를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이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살아온 사할린한인의 삶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뭇다한 이야기, 사할린'이란 제목의 사진전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렸다. (본지 9월 19일호)

**9월 18일**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의 주최로 제 10회 <사할린의 밤> 개막식이 열렸다. (본지 9월 26일호)

**9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주최로 사할린 김치축제가 개최됐다. (본지 9월 26일호)

**9월 27일** - 코르사코브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한 가정에서'민족축제가 진행됐다. (본지 10월 3일호, 러시아어면)

**9월 30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내 고향의 푸른 하늘>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창작 단체인 <만수대>와 <백호>와의

교류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본지 10월 3일호)

**10월 5일** - 사할린 주과학일반도서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토박이' 다큐멘터리 상영과 사할린동포들의 서적 또는 사할린한인에 관한 책 전시 등이 있었다. (본지 10월 10일호)

**10월 16일** - 사할린에서 한국 어경시대회가 열렸다. 이 올림피아드는 '시대와 세월 속 한민족의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주제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경시대회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본지 10월 24일호)

**10월 17~18일** -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주최로 사할린한인 현안 문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실용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모스크바, 샤프테데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알마티(카자흐스탄) 그리고 사할린 각지의 사할린한인 활동가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본지 10월 24일호)

**10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의 주최로 두 차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설명회가 개최됐다. (본지 10월 24일호)

**10월 28일** - 동북아평화연대와 국내외 시민 사회·동포단체 128곳은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러 직항 항공편 재개를 요청했다. (본지 10월 31일호)

**10월 29일** - 한국 외교부는 주러시아 대사로 이석배 전 대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31일호)

**10월 30일** - 사할린 동포 2~3세대가 국내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조부모 또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했다. (본지 10월 31일호)

**11월 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주지사배 제2회 극동 동양무술축제가 열려 허바롭스크 변경주, 캄차트카 변경주, 연해주와 사할린주에서 25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태권도(WTF), 가라데 및 한민족 전통 씨름 등 세 가지 종목이 포함됐다. (본지 11월 7일호)

**11월 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브레인 배틀'지정 대결 형식으로 한국학경시대회의 3번째 단계가 펼쳐졌다. 경시대회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본지 11월 14일호)

**11월 1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즈니스 센터 '아이호르'에서 사할린국립대 주최로 제4회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동양학'이었다. (본지 11월 14일호)

**11월 12일** - 한국 국회의원 양문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2210637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지 11월 14일호)

**11월 13일~14일** -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 학술대회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행사는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본지 11월 14일호)

**11월 18일** - 사할린의 화가 조성용 씨가 극동지역 최대 미술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9회 '아트-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전시-콩쿠르에서 전문가 부문 그랑프리 수상했다. (본지 11월 28일호)

**11월 19일~20일** -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 소속 전문가들이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의 초청으로 이틀간 사할린 동포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무용과 민요강습을 진행했다. (본지 11월 21일호)

**11월 25일** - 2025년 5월 30일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원안결로 통과했다. (본지 11월 28일호)

**11월 28일** - 2025년 5월 30일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본지 12월 5일호)

**12월 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연례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행사가 열렸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공동 개최했다. (본지 12월 12일호)

**12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 쇼핀센터 행사장에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근)와 '한글' 창작회(회장 배영희)는 동짓날 행사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에는 팔죽 시식,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교실, 공예 활동교실이 있었다. (본지 12월 26일호)

**12월 22일** - 동짓날을 맞아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의 청년부 젊은이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르신들을 찾아 보어 인사하며, 팔죽과 새해 선물을 나눠 드렸다. 이날 자체 행사도 진행. (본지 12월 26일호)

**12월 26일** -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6'가 사할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할린 현지에는 벽걸이(1,120), 탁상용(400) 달력 총 1,520부를 보내 현지 동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본지 12월 26일호)

(본사 편집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олодеж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а пятилетний юбилей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вященном пятилет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аградил активистов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за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 Пять лет существует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на объединяет энергичных, горячи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и увлекают ребят в полезную и хорош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о работа, связанная с сохран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дентичности.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проектами по волонтерскому сопровождению, проводите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пагандируете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Желаю вам сохранить свой задор и энергию на долгие годы и передать их ребятам, которые придут в вашу организацию, — обратился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Региональная молодеж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а создана 1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как структур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одной из старей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Не кажд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что в ее структуре есть молодеж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Мы создавали это движение,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передавать наши знания,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ось так, что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росло на стыке двух культур —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а следующие поколения уже приближаются больше 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Для вас русский язык родной, вы думаете по-русски. Это прави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мы живем в этой стран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ы никогда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про свои истоки,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За пять лет участ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реализовали множество 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провед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 Основной вектор нашей работы — это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Это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аздники —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День детей, День учителя и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для молодежи. М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А ближайшим праздником будет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Сергей 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Ричард Де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движению в 2023 году,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лагере, где молодые люди изучают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ещают памятные места и знакомятся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гастрономии.

— Сейчас я хочу дослужиться до пос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еренимаю опыт, учусь новому. За три года был волонтером на раз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чень важ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нашей культуре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чтобы наши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не потерялись. Мы должны делать это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помнила свои корни и гордилась своим наследием, — поделился Ричард Де.

Отметим,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6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Его цель —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в стране.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вадцать перв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Глубокоуважаемому брату (1) Пак,

Здесь, через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я хорошо слышу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брата Пак.

Мы, корейцы здесь,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когда же наконец все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словно считая на пальцах дни до давно забытого праздника. Дело в том, что с момента расставания с моим старшим братом прошло тридцать лет, и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узнать о нем вестей, поэтому я очень беспокоюсь и пишу Вам.

Я слышал, что в 14 году Сёва (2) он занимался торговлей старыми вещами в мест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рачибу Гурюдо (3)», а затем переехал в место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аппоро» (4). Также я думаю, возможно, он мог переехать в Корею. Если он переехал, то это место Чхонджу (5), провинция Чолла-Пукто, Корея. Моя родная провинция — Ансон-гун (6),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Брат не возвращался на родину. Его корейское имя — Им Гведжин (임계진), а японское — Кобаяси Дзиро. И что важно сказать: мы, корейцы здесь, слушаем наши корейские радиопередачи, и иногда, даже когда собираемся вместе, мы можем устать и, пытаюсь слушать наше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засыпаем и пропускаем передачи.

Обычно мы слушаем передачи ранним вечером, но важные новости передаются здесь в 2:30–3 часа ночи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и часто, дожидаясь их, мы засыпаем.

Учитывая эту ситуацию, я прошу вашего любезного внимания. Пришлите, пожалуйста, только три книги и набор для маджонга (7), которым здесь увлекаются. Я думаю, мы, корейцы здесь, сможем коротать время, развлекаясь маджонгом. Поэтому я осмеливаюсь написать эти несколько строк.

Книги можно купить в магазинах, торгующих повседневными книгами и школьными учебниками. Кроме того, там должны быть старые сборники рассказов или различные журналы. Что бы это ни было, если вы купите что-нибудь простое и пришлете, это станет развлечением для нас здесь. Хотя слов и много, я ограничусь этим письмом и

напишу снова позже. Для вашего сведения, разница во времени между этим местом, внутренними землями (Японией) (8) и Кореей составляет ровно два часа.

С уважением,  
Им Инсо (임인서) с Сахалина.

#### Комментарии:

(1) Брат Пак — судя по всему, автор называет так близкого ему родственника или друга.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брат», «сестра», «матушка» принято называть н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о близких людей. Скорее всего, неизвестный брат Пак не является кровным родственником автора, так как тогда он бы не обращался к нему по фамилии.

(2) Сёва 14 год — в Японии принят календарь, который отсчитывает счет годов от правления каждого императора. Сёва —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императора Хирохито,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в 1926 году. 14 год приходился на 1939 год по общепринятому календарю.

(3) Сорачибу Гурюдо — неизвестное мес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в Японии. Сорачибу — район в провинции Исикари на острове Хоккайдо. Гурюдо —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звание рынка, точно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выяснить не удалось.

(4) Саппоро — город в Японии, столица провинции Хоккайдо.

(5) Чхонджу — город в Пхённан-Пук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6) Ансон-гун — уезд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Южной Корее (центральная провинция Кореи вокруг города Сеула).

(7) — это классическая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родом из Китая, которая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элементы стратегии, тактики, расчета вероятностей и психологии. Часто её сравнивают с пасьянсами или покеро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и очень глубокая игра.

(8) Внутренние земли, или найти, — в Японии метрополия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острова Хонсю, Сикоку, Кюсю, Хоккайдо. Остальные территории — Корея, Тайвань, Квантунская область — считались колониями, или гайти.

Юлия Дин, к.и.н.

## В Корее проходят спецпоказы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созданного сахалинцами

Мечта создателе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Местные» (2025 г) сбывается: их работа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специальных показа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инициатором специальных показов в Корее выступила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котор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ла показ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в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Для участия в спецпоказах с Сахалина в Южную Корею 19 января отправилась группа,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создатели фильма — режиссер Антон Дока и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К —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и отв. секретарь Ким Риса, а также спецкор «Урималь» КТВ (ГТРК «Сахалин») Ри Бок Сун, которая помогла в переводе субтитров фильм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ходы сахалинцев на поездку в Корею взял на себя давний друг корейцев г. Макарова, меценат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Ян Сон Ван.

Первый специальный показ в Корее состоялся 21 января в музее фольклора и ест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города Чеджу. Зал,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150 человек, был полностью заполнен. При просмотре зрители не могли скрыть слез.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пецпоказа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выступили Фонд Но Му Хёна (отделение Чеджу), Культурный форум Чеджу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Чеджу се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нсан(Кохян мауль)е показ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22 января в 15:00, а также 23 января в 10:00 и 14:00. Эти показы проводятся совместно Советом старейшин Кохян мауль (председатель Дю Хун Чун) и НКО А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городе Кимпхо показ состоится 24 января в 14:00 в библиотеке Тонджин.

Как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 специальные показы в Ансане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глашены историки-эксперт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ставшие героями фильмарлл, а также операторы, снимавшие интервью в Корее. Среди приглашенных госте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директор KIN(지구촌동포연대) Че Сан Гу,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Ли Джун Ен(한양대학교 이준영 박사) и др.

Отметим, что фильм «Местные» тронул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фильме использовано много архивного (фото, видео и др.) материала, зачастую редкого, было взято 36 интервью.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работы, 100 минут пронзительного фильма... Фильм создан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авторов.

Виктория Б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Ли Чжэ Мён: РК достигнет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в развитии

РК достигнет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в развитии посредством велик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1 декабря на первой в 2026 году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оворя о планах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ой, он пообещал добросовестно и с энтузиазмом выполнять возложенную на него миссию. Коснувшись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зидент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о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ё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Затронув вопрос о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он пообещал прилаг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их скорейшего успеха. Ли Чжэ Мён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которое снизит уровень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копившиеся недоверие и враждебность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и, что растопить лёд сразу будет сложно, но, опираясь на надёжную оборону, можно проложить путь к взаимному процветанию посредством диалога, общения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а не угроз,-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Хот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является идеалом, в реальност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 прагматичный подход, учитывающий реальность,- добавил он. Ли Чжэ Мён выраз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му единству и реформе прокуратуры, пообещав добиваться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решения, основанного на воле народа. Что каса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то он заявил, что ожидает падения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примерно до 1.400 вон за доллар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двух месяцев. Коснувшись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шлин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не испытывает серьёзной обеспокоенност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воим основным принцип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звал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основанный 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 Хан Док Су приговорён к 23 годам тюрьмы

21 янва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приговорил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К Хан Док Су к 23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соучастие в попыт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уд пришёл к выводу, что Хан Док Су способствовал объявлению в стран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Это первый приговор в серии судебных процессов над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частными к противопра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бъявляя приговор, суд квалифицировал действия Хан Док Су как участие в ант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Подсудимый заявил, что «смирненно примет любое решение». Он был взят под стражу в зале суда после оглашения приговора. Групп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расследовавшая дел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потребовал для Хан Док Су 15 ле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Однако суд вынес более строгий приговор, учт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 Consumer Reports: OLED-телевизоры Samsung Electronics - лучшие

OLED-телевизоры производства Samsung Electronics названы лучшими телевизорами в последнем рейтинг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издания Consumer Reports. В частности, модель QN65S90F получила высокие оценки за превосходное качество изображения, высокую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расширенного динамического диапазона (HDR) и отличное качество звука. Модель QN65S95F получила высшие баллы в категориях «качество изображения» и «HDR». Помимо ярк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этот продукт обладае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звучанием благодаря встроенной аку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с поддержкой Dolby Atmos.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электроники CES 2026 в Лас-Вегасе линейка телевизоров и аудиосистем Samsung Electronics на базе технологий OLED и Micro RGB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восторженные отзывы мировых СМИ. Продукты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CES, были отмечены более чем 130 наградами «Лучший продукт» от ведущих иностранных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изданий.

## Число фальшивых банкнот в РК в 2025 году рекордно низкое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в 2025 году в стране было выявлено 98 фальшивых банкнот. Это на 33,3%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а также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 1998 года, когда Банк Кореи начал собир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анные. Сокращ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связано в основном с ростом числа безналичных транзакций. В 2015 году Банк Кореи выявил 3.293 фальшивые банкноты, в 2018 году их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менее тысячи,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нее ста. В РК на каждые 100 миллион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обращении банкнот приходилось около 1,4 фальшивых.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1.977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1.866 в еврозоне, 757 в Канаде и 16,5 в Японии.

RKI

## Ли Чжэ Мён устроил взбучку подчиненным за инцидент с запусками дронов в КНДР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резко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инцидент с беспилотником, который,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был изготовлен и направлен в сторону КНДР частным лицом. Во вторник, 20 января, ситуация обсуждалась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гд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заявил,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недопустимы и по своей сути сопоставимы с началом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При этом сильно досталось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за невозможность обеспечить режим охраны границы.

Напомним, что 9 января КНДР обвинила Южную Корею в запуске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едоставив в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обломки,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снятые дроном. Позже в СМИ появился южнокореец, который взял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себя за направление БПЛА, сказав, что «не знал, что так нельзя». В качестве мотива он назвал желание изучить уровень радиационного излучения в районе уран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н трижды направлял дроны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з которых только один вернулся обратно.

Ситуация с БПЛА в итоге стала обрастать разными противоречивыми подробностями и выглядит теперь весьма запутанной, что и заставило вмешаться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а. «Незаконно с какой бы то ни было целью направлять беспилотник на Север или допускать, чтобы гражданское лицо проникло с беспилотником в район КНДР - такого быть не должно!»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потребовав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изошедшего.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делу уже идет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однако подчеркнул: если действия с беспилотником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с целью провокации конфликта, их последствия выйдут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уголовн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говорили к пяти годам тюрьмы по первому из обвинений

В пятницу, 16 января, суд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знал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иновным в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и законным действиям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 по ряду других обвинений, приговорив его к пяти годам тюрьмы. Вынесенный приговор стал лишь первым в череде судебных решений по делам против бывше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ело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рассматривал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удьи Пэк Дэ Хёна. Учитывая высок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оцесса, суд разрешил прямую трансляцию всего заседания, которая велась с 8 часов утра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влекл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орейцев.

Суд установил, что 3 янва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н Сок Ёль задействовал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законному исполне-

нию ордера на его задержание, выд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ем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Эти действия был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ы как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е исполнению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иотягчающ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Обосновывая приговор, суд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кс-президент, находясь под следствием, использовал подчиненных ему сотрудников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личной защиты от правосудия, включая попытки блокировать исполнение судебного ордера и сокрытие доказательств.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были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ы как фактическое превращ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хранной структуры в "личную гвардию", что несовместимо с принципами прав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удьи указали, что преступления были совершены в частных интересах обвиняемого, а не в интересах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 этом президент дал установку не допускать неконтролируемого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 его словам, искусственное нагнета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может иметь прямые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эконом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и этом президент дал установку не допускать неконтролируемого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 его словам, искусственное нагнета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может иметь прямые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эконом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ласти Сеула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камбэк-шоу BTS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ла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дал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ведение 21 марта масштабного камбэк-шоу K-POP группы BTS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 одном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и символи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Сеула. Условием поставлено особенно тщательное соблюдение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итывая ожидающийся большой наплыв фанатов.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В день концерта весь мегаполис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олнить "атмосферой BTS".

Как пояснили 22 января в мэрии Сеула, речь идет о мероприятии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заявку на которое подали компании HYBE и BigHit Music.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плане он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1 марта.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азрешение будет выдано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при условии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пересечения потоков зрителей при их выходе и минимизац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затруднений.

Концерт приурочен к официальному выходу нового альбома BTS "Ариран",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на день раньше - 20 марта. Шоу в Сеуле станет перв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гда все семь членов популярнейшего в мире бойсбэнда наконец соберутся вместе после почти четырехгодичного перерыва. За это время они успели отслужить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то является обязанностью для мужчин в РК, а некоторые из группы выпустили сольные альбомы.

Власти Сеула уверены, что событие привлеч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и поклонников группы. Ожид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ток сотен тысяч фанатов. В этой связи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ить все аспекты обеспе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аладить координацию с полицией, а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ов столицы - Чонно и Чунг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транспор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столицы, а также возможным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м практикам, включая необоснованное завышение цен в гостиница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роверки охватят объекты размещения в района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280 объектов в Чонно и 411 - в Чунгу.

В день концерта город планир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BTS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создать в Сеуле "атмосферу BTS" в че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группы и объединить K-POP с более широким контекстом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халлю".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еула Ким Чхан Гю в интервью местным СМ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иоритетом остается безопасность как зрителей концерта, так 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По его словам, мэрия рассчитыв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 событие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черкну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Сеула и превратить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в значим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Сахалин отправил более 10 тонн помощи участникам СВ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чинает новый год с продолжения важнейшей миссии — поддерж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зоне СВО. Сегодня с острова отправится первый в 2026 году гуманитарный груз общим весом более 10 тонн.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огрузке первой в этом году отправк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ирокого волонтер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студенты СахИЖТ, активисты «Владимирского станичного казачьего обще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пора России», волонтеры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Для нас это уже больше, чем акция — это ритм жизни, видишь, как студенты, казаки, госслужащие, военные вместе носят эти коробки и понимаешь, что такое настоящее единство. Каждая отправка даёт чувство, что мы здесь, в тылу слаженный механизм поддержки», — делится волонтер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Александр Белов.

В состав первой в этом году отправки вошли как личные посылки от семей сахалинцев, так и коллективные грузы от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школ, ветеранских клубов, в том числе от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груза — теплые вязаные вещи, средства гиги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запчасти, зимняя резина, а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гостинцы и детские письма.

«Эта отправка — первая в новом году. В 2025 году Сахалин вошёл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устойчивой волонтерской поддержке СВО, и мы намерены эту планку держать. Я лично не раз убеждался в том, какую радость и моральный подъём испытывают наши бойцы на передовой, получая не только посылки от своих домашних, но письма от совсем незнакомых ребят, наших школьников. Не менее важна и адресность таких грузов —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из рук в руки.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например, трудятся под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сейчас это зимние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окопные свечи и так далее.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такая работа ведётся у нас системно, и это заслуга всего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Груз уже доставят в пункт назначения специальным бортом. Далее волонтеры гуманитарного центра в Шахтерске рассортируют посылки для оперативной передач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Отправка стала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масштабной работы, проделанной сахалинца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Напомним, инициатив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 2022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объединила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Общий вес помощи, собранной и отправленной за всё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екта, уже превысил 900 тонн.

## Более 1500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проверили репродуктивное здоровье в 2026 году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по оценк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продолжают оставать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идов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2025 году ее прошли 30 036 женщи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смотров у 25% женщин были выявлены факторы риска, они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второй этап —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верки здоровья доступны всем жителя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инициирова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этом году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одолжатся, за две недели января процедуру прошли уже больше 1500 островитянок.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по оценк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появилась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с 2023 года. Комплекс медицин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ступен женщинам и мужчинам от 18 до 49 лет. В ходе обследования у пациентов могут быть выявлены состояния,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негативно повлиять на зачатие, беременность, роды и послеродовой период.

— Приём занимает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Мы опрашиваем женщину, узнаём о жалобах и желании забеременеть, осматриваем, берем мазки на флору, онкоцитологию. И если по анализам будет выявлено отклонение каких-либо параметров от нормы или заподозрена проблема, пациент направляется на второй этап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на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на анализы на инфекции, передающиеся половым путем. В рамках репродуктив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этот вид диагностики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гинеколог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рина Коренькова.

Азиза Талабекова с мужем планируют второго ребёнка, поэтому супруги решили первым делом пройти репродуктив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Женщина уже сдала все анализы и записалась на приём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Беременность требует отличного здоровья со стороны отца и матери, поэтому мы с мужем решили не тянуть с проверкой здоровья.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есть ли какие-то нарушения, ожидание немного волнительно, но после второго визита уже всё будет понятно, — рассказала пациентка.

Нарушение менструального цикла, эндометриоз, миома матки — одни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у женщин. При недостаточном обследовании

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м лечении такие состояния могут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ться на планирован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в будущем.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у ОМС, для записи необходимо позвонить на номер 1-300 или обратиться к лечащему врачу. Медосмотр можно пройти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дел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время дл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 в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 Победа в федер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оможет обновить ше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 «Семья» будут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шесть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четыре детских сада и две школы в различ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Семья» запущены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ервый призван воспитать патриотично настроенных граждан, способных обеспеч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и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Второй нацелен на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крепл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 частности, выделение регионам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средств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вошла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такого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и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етские сады № 11 «Ромаш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7 «Солнышко», № 23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и № 8 «Островок» в Корсакове, а также средние школы в селах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Бошняково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 Успехи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складываются из достижений отдельных людей. А они обусловлены воспитанием, качеством и полнотой полученных знаний.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бновлен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ть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ю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или школа — это вклад в будущее благополучие нынешних малышей и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Поэтому мы будем и впредь обновлять облас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влекать на эти цели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в Корсакове — «Островок» и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уже ведется ремонт кровель. В ост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боты стартуют с началом лета.

— Малышей мы временно переводим в другие детсады.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оспит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не прерывается, а семьи не испытывают неудобств. Работы в школах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только во время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села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за лето выполня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в том числе,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душевые.

— Предстоящий ремонт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ить нашу школу, сделать ее более безопасн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обновится наш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Для него обязательно закупим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инвентарь, чтобы каждый ученик мог укрепить здоровье,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спорт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села Сокол И.Э. Ран.

А в школе села Бошняково предстоит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ищеблок, кровлю и фасад. Объект крупный, поэтому работы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лет.

##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подвалы домов, благоустроили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адов: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обывал с инспекцией в Корсакове

Команд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несла визит в Корса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активистами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 За Россию» посетил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а также пообщалась с жителями. Перед ревизорами стояла задача — выяснить, как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исполняют поручения, которые д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 с населением и в рабочих поездках.

Чаще всего жители Корсакова обращались к властям по поводу состояния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и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подвал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о трем адресам, где фиксировались подтопления. Один из самых проблемных — по улице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5.

— Затапливало все секции подвала. Когда начал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вода стояла по уровень выемки грунта — где-то 2,5 метра. Ее слили в действующую ливне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Выполнили работы по водоотведению.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роблем с подвальн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больше нет, — отчит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а этой же улице — в доме № 9 — предотвратили подтопление подвала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ми водами. Также здесь обустроили вентиляцию, чтобы не скапливался конденсат и не застаивался воздух.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в доме планируют заменить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Контролеры убедились, что аналогичная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и в подвале дома № 8 на Приморском бульваре. Здесь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анализационного колодца.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ообщалась с жителями квартир дома № 1186 по улице Окружной. Ранее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они попросили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ридом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 Асфальт возле дома уложили. Но если бы не снег, вы бы увидели, что на дорогах трещины. В теплое время года стоит вода, которая бежит под дом, — посоветовали жители.

Выяснилась еще одна проблема.

— Был проведен ремонт входной группы с обустройством пандуса со стороны эвакуационного выхода.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жильцы, в самом подъезде поставили перегородку, теперь нет сквозного коридора, и люди н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выходом. Кроме того, он оказался закрыт на замок. Необходимо ситуацию исправить, ведь в доме живет инвалид, пандусом также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мамы с коляска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начальник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Юрьев.

Кроме тог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озеленения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а также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рганизовать освещение тропинки 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и лестницы, ведущей к дому. Последняя просьба поступила от жителей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 Дом находится на сопке, мы спускаемся и поднимаемся по деревянной лестнице. Когда с детьми идешь рано утром или вечером из школы или детсада, очень темно и небезопасно. Зимой из-за наледи скользко, — рассказали жильцы дома.

Ревизоры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работами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водосточной системы в доме № 11 по улице Парковой.

— Водоотвод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просьбе жителей, чтобы во время осадков не заливало фасад дома. Хоч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специалисты установили бетонные лотки. Это хорошее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отвести воду и от отмостки,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и другие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 на улице Корсаковской между домами № 9 и 11 облагоустроили территорию — после ремонта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здесь восстановили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Неподалек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обустроили сквер.

Позитивные перемены произошли и в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Корсако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обновили покрытие дорог, тротуаров и площадок,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Также здесь обустроили три подпорные стены. Эти сооружения необходимы, чтобы сдерживать грунт от сползания — ведь здание стоит на сопке.

— Хоч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тах грунт уже начал осыпаться. Следите внимательно за качеством работ, чтобы подрядчик исправил недочеты в рамках гарантий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 отметил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Золотая рыбка»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выполнили частично — их продолжат в этом году. Здесь уже обустроили прогулочные зоны, установили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веранд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Организованы две площадки для младших групп. В ходе второго этапа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еще две игровые зоны для детей постарше,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адом.

Во время инспекции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удостоверилась, что на улице Нагорной появился комфортный спуск к главной дороге.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участок с крутым уклоном становился опасным из-за гололедицы. В ответ на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ей здесь установили ограждение и перила. Однако контролеры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резкий сход с пешеходной дорожки и запланировать на этом месте установку понижающего бордюра.

По просьбе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роекту по украшению фасадов домов муралами.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дома № 3/3 по улице 2-й Микрорайон комиссия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я на обветшавший фасад дома, который контрастирует с искусной картиной.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фасада запланирован в 2028-2030 годах. Мэрии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КХ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носа срока работ на более ранний период.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и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ассмотрит обращение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по поводу завершения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участка улицы Невельской от перекрестка с улицей Рудановског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жалуются, что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от грунтовой дороги поднимается пыль.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ила исполнение десяти поручений. Девять из них выполнено, одно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исполнения.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инспек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ет лич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블리츠 체스 대회 개최

지난 1월 11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사할린주 체스연맹이 공동 주최한 연례 한인 디아스포라 블리츠(단시간 속기) 체스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체스연맹 소속 전문가들이 토너먼트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능숙하게 운영하며 원활하게 진행됐다.

여러 차례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는 림 알베르트는 이번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 데니스가 2위, 이영복 씨가 3위에 올랐다. 또한 베테랑 부문에서는 리양춘 씨, 학생 부문에서는 포드코워로브 막심, 여성 부문에서는 이명화 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시한인회는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오는 8월에도 블리츠 체스 토너먼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사진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 [동포의 창] '사진으로 본 재일코리안 100년' 개정판 발행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사할린 한인 전후 보상 문제 등 추가



'재일코리안 100년' 개정판 발행 [재일한인 역사자료관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민단 산하의 재일한인 역사자료관(관장 이성시)은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안 100년'의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 도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의 도항을 시작으로 일본에서의 생활, 조선인 대량 학살을 불러왔던 1923년 관동대지진, 강제 연행, 황국신민화 교

육, 해방과 귀국, 새로운 재일동포의 시작, 차별 철폐 운동 등 재일동포 100년의 역사를 800여점의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자료관은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 후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이나 사할린 한인 등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 등을 추가했다.

또 이후 연구·발굴된 내용 등을 추가 및 수정했고, 디지털

화한 자료와 전문가의 칼럼 등도 새로 게재했다.

자료관 관계자는 "재일코리안의 법적·사회적 차별과 투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본에 뿌리내리고 살아오면서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해온 재일코리안의 삶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며 "한인 차세대들에게도 뿌리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주 문산도서관, 사할린 한인 기획전시 개최... "이주와 공존의 역사 되짚는다"

내달 24일까지 사할린 한인 생애 기록전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 개최  
박승의 교수의 기억으로 파주 사할린 동포 140여명의 삶 재조명

파주시 문산도서관은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전시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할린 한인의 삶을 평화와 공존의 시선으로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파주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이주당해 사할린에 정착했으나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동포 140여 명이 당동리와 선유리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시는 파주에 거주하는 박승의 교수의 기억(84)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테마로 전개된다.

1942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박 교수는 시대의 굴곡에 따라 '조선인 박승의', '일본인 다카하라 가즈요시', '소련인 보구 다카하라 유라'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전시는 국적과 체제가 수차례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모국어 교육을 이어가며 정체성을 지켜낸 그의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역사에 담긴 이주와 공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박 교수가 직접 집필한 한국어 교재와 개인 기록물 등이 소개된다.

이밖에 17일과 24일에는 전시의 깊이를 더할 연계 강연 '사할린에서 온 목소리'가 열린다. 박 교수가 직접 강연에 나서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영주귀국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인숙 문산도서관장은 "세 개의 이름으로 이어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지역사회가 공존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리가



파주 문산도서관의 기획 전시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 포스터. 파주시 제공

되길 바란다"라며 "문산도서관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이웃들을 잇고 소통하게 하는 평화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 태권도를 세계로... '태권도 한류의 시작' 이준구 사범

재외동포청,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미국에서 시작된 태권도 전파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권도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태권도를 세계로...외교와 문화의 가교

이준구 사범의 활동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됐다. 그는 미국 내 각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 외교관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권유했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외교관들의 요청으로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의 길을 열었다. 이는 태권도 세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또한 당시 무도(武道)가 불법이던 구소련에 가서 고위 관리들을 만나 설득해 무도(武道)를 합법화하고, 가라테 사범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소련 내 태권도 합법화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 사범은 브루스 리(이소룡), 무하마드 알리 등 세계적인 인물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브루스 리의 추천으로 홍콩 영화 주연을 맡기도 했고, 무하마드 알리의 코치로 활약하며 그의 방한을 성사시키는 등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태권도 안전의 기준을 만든다

이준구 사범은 제자가 시합 도중 큰 부상을 입자 태권도의 안전성 강화를 고민했다. 이후 머리·가슴·정강이·팔꿈치 보호장비를 직접 개발했고, 이는 오늘날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되는 보호 장비의 원형이 되어 태권도의 안전성과 경기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 태권도를 통한 한·미 스포츠 외교

이 사범은 미국 태권도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한·미 태권도인 우호 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하원의원 4명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후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고문을 맡아 태권도를 통한 한·미 간 우호 증진과 스포츠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그의 공적을 기려 2003년 워싱턴 D.C.는 2003년 6월 28일을 '준리(Jhoon Rhee)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0년에는 '미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이민인 203인'에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됐다. 2009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 "태권도의 대부이자 한류의 시작"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준구 사범은 평생을 태권도에 바치며 미국과 세계 곳곳에 태권도의 가치를 알린 태권도의 대부이자 한류의 시조"라며 "그의 열정과 헌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1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교육부 관계자는 "2025/26학년도 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8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 학년도부터는 해당 평가 제도가 모 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평가 제도는 7개 시범 지역의 89개 학교에서 시험 운영 중이다. 각 학교는 교육부가 제안한 세 가지 평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러시아 학교가 따르게 될 단일 평가 모델이 확정될 예정이다.

## В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ах с 1 сентября 2027 года введут оценки за по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в школах 1 сентября 2027 года для учащихся с 1-го по 11-й класс введут оценки за повед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за соблюдение дисциплины, социаль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активность в учебе и за личностные качества. Об этом пиш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пробацию проводят с начала 2025/26 учебного года среди учащихся с 1-го по 8-й класс.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новую оценку введут для учащихся всех классов.

Новую отметку тестируют 89 школ в семи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ах.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выбран один из трех предлагаемых вариантов оценки.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выбрана единая модель, которой будут следовать все российские школы.

## 동행자 모집 가장한 사기, 러시아인들 피해 주의

경로를 조율한 뒤 사기꾼들은 대화 상대를 메신저로 유인 한다. 사기범들이 러시아인들을 속이기 위해 '공동 장거리 여행'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МАХ의 '러시아 사이버 경찰 통보' 채널을 통해 전해졌다.

범죄자들은 특별 채팅방과 그룹에 동행자 모집 광고를 게

시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외진 지역을 목적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꾼들은 제안에 응당한 이용자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옮길 것을 권유한 뒤, 좌석 예약을 명목으로 피싱 링크를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죄자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있다.

## Мошенники обманывают россиян при планировании совместных дальних поездок

После согласования маршрута аферисты заманивают собеседника в мессенджер.

Мошенники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хему с совместными дальними поездками для обмана россиян.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канал «Вестник Киберполиции России» в МАХ.

В специальных чатах и группах преступники размещают объявления о поиске попутчиков. Зачастую они указывают наиболее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чтобы завлечь жертв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феристы получают отклик на с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они предлагают перейти в мессенджер.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еступника — отправить жертве фишинговую ссылку под предлогом бронирования места.

## 사할린 주민들, 연휴 기간 베트남·홍콩·인도 여행 급증

지난 새해 연휴를 해외에서 보낸 러시아인의 수가 1년 전 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이 선두를 차지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관광객 증가율 상위 3위에는 요르단과 함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CIS 국가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 횟수는 각각 약 25% 증가했다. 남미 여행은 21% 늘었고, 유럽과 북미 지역 방문도 각각 14% 증가했다.

사할린 주민들 역시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아시아와 CIS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 관광객의 34%가 중국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태국이 2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겨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1월 베트남행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5배 증가했다. 홍콩과 인도 역시 각각 2.3배와 2.6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터키, 아랍에미리트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벨라루스와 터키는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태국 역시 인기 여행지에 포함되었으나, 올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리트의 휴양지가 상위 3위 자리를 차지했다.

## Сахалинцы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стали чаще летать во Вьетнам, Гонконг и Индию

Прошедшие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за границей провели на 22,5% больше россиян,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Активнее всего росло азиат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о главе со Вьетнамом, в топ-3 по динамике прироста турпотока также попали Иордания и впервые — Босния и Герцеговина.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 на четверть — выросло число поездок в страны СНГ, Африки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В Южную Америку ездили чаще на 21%, Европа и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прибавили по 14%.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на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отправились в страны Азии и СНГ.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истов предпочли на новогодние выходные отправиться в Китай — 34% турист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Таиланд (22%). Вместе с тем этой зимой интерес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местился в направлении Вьетнама, в январе туда отправилось в 5,5 раза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ледующими по росту интереса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и Гонконг и Индия — увеличение потока туристов в 2,3 раза и 2,6 раз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транами-лидерами по числу гостей из России стали Беларусь, Турция и ОАЭ. При эт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топе были те же Беларусь и Турция,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ый у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аиланд,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уступил место в топ-3 Дубаю, Абу-Даби и другим курортам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